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April No.111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446호]

(2026.04.07~2027.04.06)

 NH-Amundi자산운용

Contents

시장전망

| | |
|---------------|----|
| · CIO 칼럼 | 03 |
| · 국내 주식 시장 전망 | 04 |
| · 국내 채권 시장 전망 | 05 |
| · 해외 주식 시장 전망 | 06 |
| · 해외 채권 시장 전망 | 07 |

CIO 칼럼

현재 시장금리 상승은 과도, 기준금리 4번 인상 반영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이 가파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상승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국고채 금리의 상승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50~60불 정도 하였으나, 현재 90~100불 사이를 오가며 8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한 환율도 급등하여 15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10% 상승하면 물가가 연간 0.2%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폭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가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주요국들의 연간 통화정책 전망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미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이 매파적 동결로 전환되어 향후 인상 리스크를 반영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기준금리 2.50%를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를 4번 정도 인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韓 현재금리 수준이 암시하는 향후 변동폭



Source : KB증권

종전 이후, 금리 하락 전망하나 과거 수준으로의 하락은 힘들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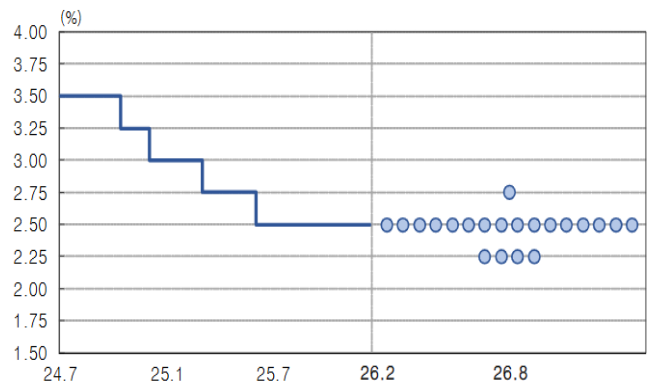
그러나 아래 표처럼 전쟁직전의 한은 금통위원들의 전망은 기준금리 동결이었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면 종전 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시장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유가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 그 영향을 일시적으로 보고 대부분 통화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물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간다고 보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꾸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유가 상승은,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원유 생산시설 복구,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의 요인들로 곧바로 종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 후 금리는 하락하겠으나, 유가 및 환율 급등의 물가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사라질 때까지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의 추가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K-점도표,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 시사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26.2월)



Source : 한국은행

한수일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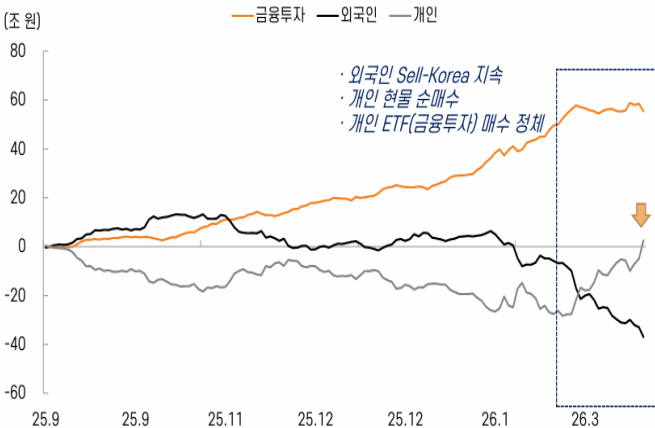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전망

3월 국내 증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극심한 변동성 국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기준 KOSPI -11.05%, KOSDAQ -5.98%) 이달 들어서만 서킷브레이커가 2차례, 사이드카가 무려 7회(매도 4회, 매수 3회) 발생될 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연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던 시장은, 3월 들어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3월 중순 FOMC, BOE, ECB 회의에서 연쇄적인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며 국제 금리 수익률이 폭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글로벌 펀드들의 신흥국 자산 비중 축소 및 급격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의 밸리를 견인했던 '골디락스'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시험 받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발전소 타격을 5일 연기하고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회담의 최종 타결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미국의 군사작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 등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명분상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핵심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선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및 금리 상승(Higher for Longer) 환경에 대비하여 1) 비중동 지역 LNG 수급 밸류체인, 2) 방산, 3)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Sell Korea' 3월 들어 가속화



* 출처 :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코스닥 포함 중소형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기관 유입
촉진

- ▶ 정부주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연기금 참여 유도



세제 혜택
확대

-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연장
- ▶ BDC 투자 시 세제 혜택 적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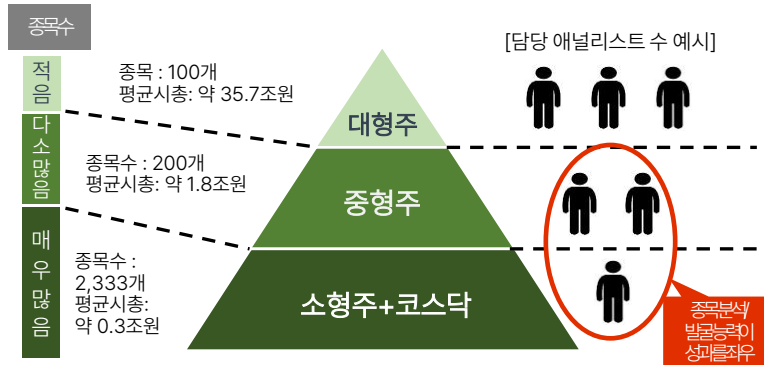


투명성
강화

- ▶ 심사 강화를 통한 신규 상장 및 폐지 신속화
- ▶ 승강제 도입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촉진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투자자의 관심 부족으로 저평가된 유망 종목이 다수 존재하는 중소형주 시장



* 출처 : 한국거래소(2026년 3월말 기준)

3. 다수의 중소형주 분석 인력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리서치 조직을 활용하여 유망 종목 발굴

국내주식 운용역&애널리스트

20 명

중소형주 분석 인력

6 명

기업 담당자 면담 횟수

연 1,100 건

일반 기업 리서치 보고서 작성

연 300 건 이상

* 2025년 12월말 기준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1 | C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1% 이내 | -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9% | 1.5% | 0.8% | 0.78% |
| 운용보수 | 0.54% | | | |
| 기타보수 |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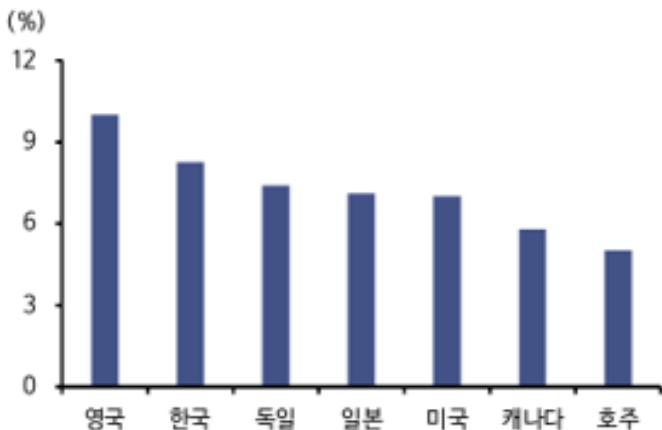
시장 전망

3월 국고채 금리는 美-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매파적 선회 경계감이 맞물리며 큰 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취약해 주요국 대비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으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채권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 하순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상단 3.75%)에도 불구하고 올해 및 내년 물가 전망치 상향,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아울러 ECB와 BOE 등 미국 외 주요국 통화정책의 매파적 스탠스 확인, 신임 한은 총재 내정자의 매파적 성향에 대한 경계감 등도 월말 금리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24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48.0bp)

4월 채권시장은 美-이란 전쟁 장기화 여부, 국제유가 흐름, 한-미 통화정책회의의 결과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WGBI 자금 유입 강도, 재경부 국고채 발행량 축소 영향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4월 금통위는 美-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wait and see'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등에 경계를 피력하며 중립~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내수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공급측 충격이 가해진 점을 고려 시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 이상의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주요국 에너지 물가 비중



* 출처 :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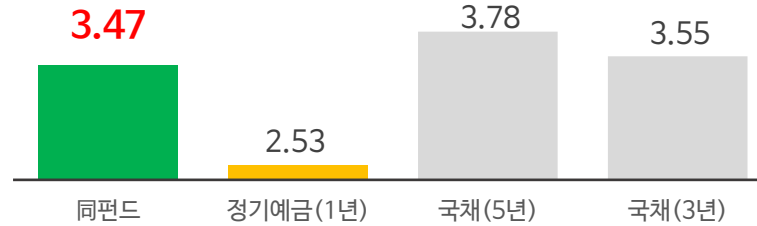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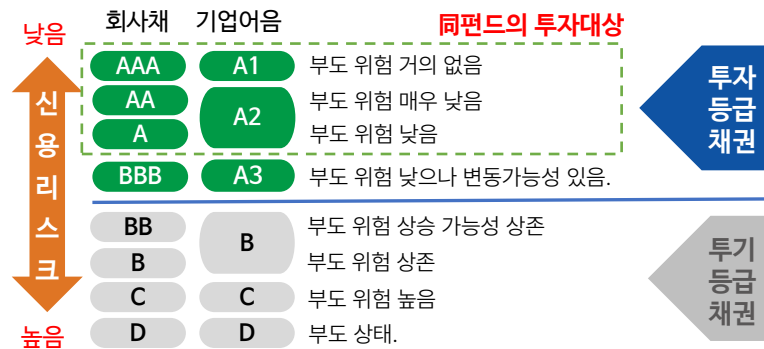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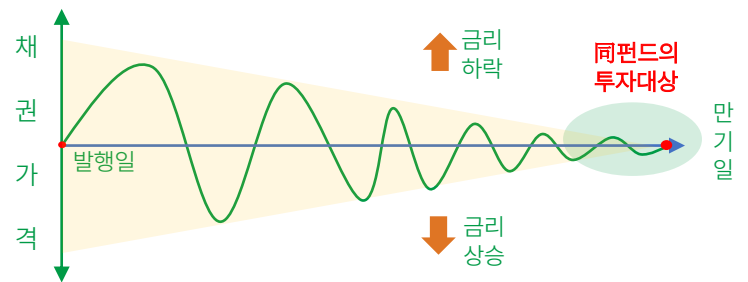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3월 31일 기준)

-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2 | C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0.3% 이내 | -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05% | 0.30% | 0.19% | 0.18% |
| 운용보수 | 0.075% | | | |
| 기타보수 | 수탁 0.01%, 사무관리 0.01%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 할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은 단기 시황에 따라 급등락 하였고,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 비중이 큰 아시아 및 유럽 증시의 타격이 컸으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금 가격도 폭락하였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FED 잔존 의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지속되는 공습과 수뇌부 제거에도 불구하고 신정국가인 이란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에 이어 미국 10년물 금리까지 폭등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화두에 올리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고 48시간 최후통첩을 던지고,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이를 5일 연장하고, 동시에 해병대와 공수부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적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추가 확산 발생 시 유가 급등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빠르게 전쟁을 매듭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압박 받아온 위험자산 가격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양방향으로의 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중히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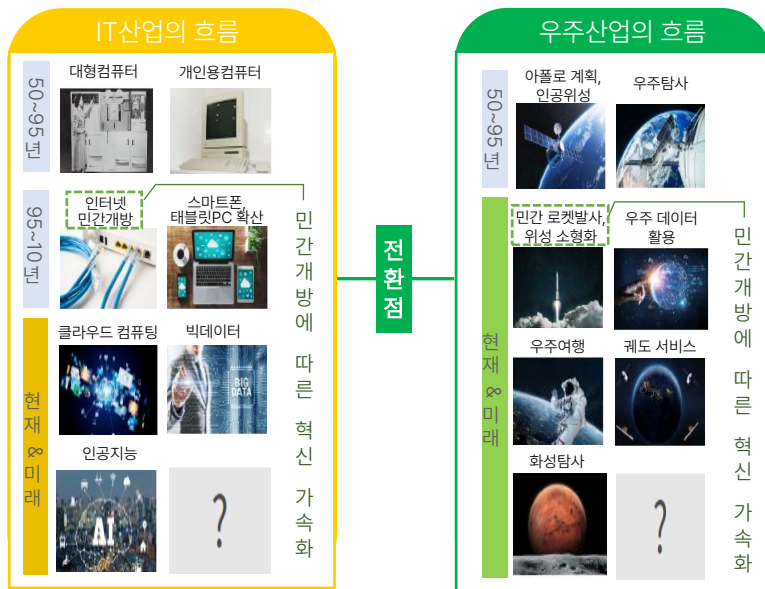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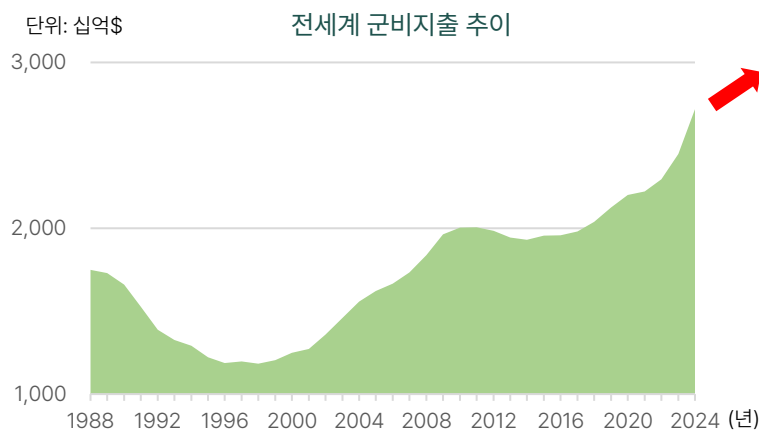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 | Ae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1.0%이내 | 0.5%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70% | 0.35% | 0.85% | 0.80% |
| 운용보수 | 0.80% | | | |
| 기타보수 | 수탁 0.06%, 사무관리 0.02% |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S&P 500 지수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3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이스라엘 - 이란 전쟁으로 인해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2월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및 최고지도자를 향한 기습 대규모 공습으로 전쟁은 시작되었고, 3월 내내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동 기간 동안 유가는 최대 100% 가깝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며 금리는 급등하였고 스프레드는 확대 되었습니다. (미 10년물 +17bp, 독 10년물 +10bp, 영 10년물 +36bp)

4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전월에 비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이란 모두 전쟁을 끝내고 싶은 속내를 비쳤으며, 이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종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나 그 전에 휴전을 진행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의 진행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이나,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의 지상군 투입 및 격화된 전쟁 수개월 진행)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시장은 미-이 종전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며, 크게 상승한 금리 및 확대된 스프레드를 상당부분 되돌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회사채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이 길며, 투자등급 회사채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위험도가 높지 않아 휴전시, 가장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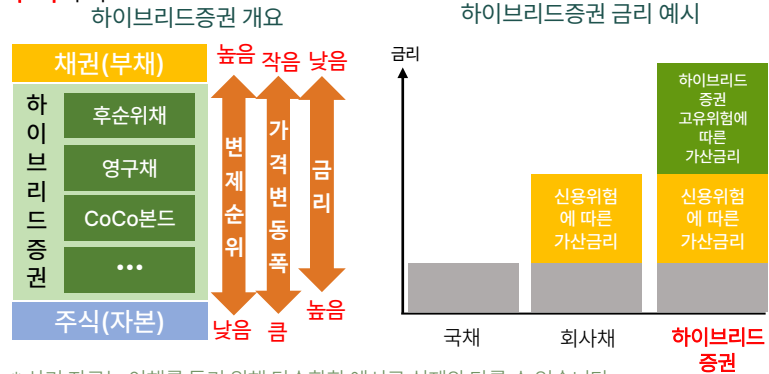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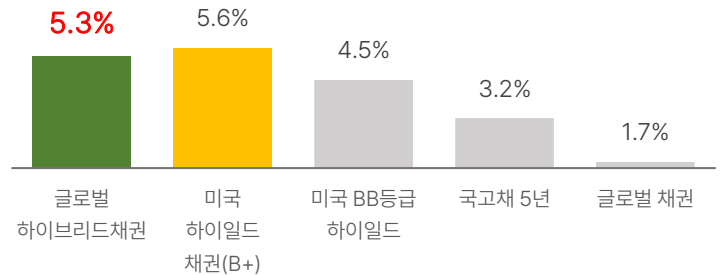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6년 2월 28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 | |
|--|--|
| <p>프랑스 전력공사</p> <p>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신용등급 : BBB+(S&P)</p> | <p>도이치방크</p> <p>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A(S&P)</p> |
|--|--|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 | Ae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0.8%이내 | 0.4%이내 | - | - |
| 할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50% | 0.25% | 0.45% | 0.42% |
| 운용보수 | 0.40% | | | |
| 기타보수 |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